

지역 소식통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노후 가로등 교체추진

정읍시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 집단시설지구(내장터미널 일원) 일대의 가로등이 새롭게 교체된다.

시는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6월까지 내장산 집단시설지구의 노후 가로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내장산 집단시설지구는 숙박 시설과 상점들이 밀집해있음에도 가로등이 노후하고 그 숫자가 적어 야간에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내장산 방문객들이 일몰 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가로등의 숫자를 늘리는 한편 기존의 낡은 가로등을 더 밝으면서 전력 소모는 적은 LED 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가로등 교체공사에는 약 2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달 초에 발주해 6월 말 완료 목표. 가로등 31분과 LED 등기구(80W) 34개, 분장반 1면을 설치·교체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선)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꿈을 키우는 청년농업인(만 39세 이하)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안군 청년농업인은 560여 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약 4.0% 수준으로 지역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은 영농정착시 영농기간 구축을 위한 자금부족 문제로 인해 신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계 중인 경우도 부모로부터 독립에 어려움을 겪어 영농현장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젊은 후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복 기초지자체 중 자체 예산으로 가장 많은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10명을 선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치매 안심도시로

## 치매안심센터 신축 완료... 가족카페·검사실 등 갖춰 예방·관리·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통합 서비스 호응

정읍시가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시 60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 수는 3,654명으로 60세 이상 인구의(2019년 12월 말 38,621명) 9.46%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치매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이자 국가적·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민선 7기의 대표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해 약 2년여의 기간을 걸쳐 금봉동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완료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새로운 보급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시작하며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시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 치매에 대한 경각성 고취와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치매 예방·관리와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읍시는 민선 7기 대표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해 약 2년여의 기간을 걸쳐 금봉동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완료했다.

이번에 이전한 치매안심센터는 부지 4,822㎡에 지상 2층의 연면적 975.2㎡의 규모로 가족 카페와 심터, 프로그램실, 검사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치매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가족 간 정보교류의 장소로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또, 시민들의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60세 이상 시민들을 위한 치매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증치매와 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치매 환자를 위한 조호 물품 제공과 치료비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유진섭 시장은 지난달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 주요 사업 현장 방문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점검차 방문했다.

유 시장은 센터 관계자들에게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이 불편함 없도록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명상과 원예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시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 발굴과 예방·회복 관리는 물론 치매 인식개선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치매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치매 환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이달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스쿨존(20개소)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섰다.

##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고창군, 20개소 집중 단속나서

고창군이 이달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스쿨존(20개소)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3월25일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의무 설치 및 '가해자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이에 고창군도 초등학교 개학 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단속과 주민신고제 운영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팔을 걷어붙였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4대장소(소방시설주변 5m이내, 횡단보도 위, 버스승강장 10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에 대한 단

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에 3월부터 본격 시작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어플(생활불편 신고, 안전신문고)로 1분 간격 사진 2장을 촬영하면 국민신문고에 바로 접수된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무인단속 카메라(CCTV) 설치장소 외 지역을 단속할 수 있어 평소 불법주·정차 때문에 자녀안전이 걱정되었던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며 "군민 모두가 단속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고창군이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안전감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에 나섰다.

군 코로나19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2인 1조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불시 현장점검은 자가격리자가 정해진 위치를 지키는지 등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탈 의심 시 경찰과 협조해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고창군 해외입국자는 12일 기준 22명이다. 입국자들은 인천공항에서 해외입국자 전용 리무진버스에 탑승해 전주 월드컵경기장에 도착한 후 전북도에서 제공한 버스로 남원 인제개발원

에 도착하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게 되면 고창군보건소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자택까지 이동한 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군에선 생수, 즉석밥, 라면 등 17개 품목의 생필품을 지원한다.

군은 80명의 전담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 설치와 함께 매일 2차례씩 전화로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와 생활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고창군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이탈 시 코로나19 확산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투표소 안심하고 오세요”

### 지역 내 46곳 사전 방역·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비치

정읍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높은 전염성을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소 방문을 망설이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표소 내 감염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지역 내 46개의 투표소에는 체온계와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기포대 및 기포용구 등을 선거가 이뤄지는 동안 주기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투표사무에 필요한 인력 외에 92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투입된 인원은 선거인의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당일 투표소 시설에 주기적인 방역 소독을 담당한다.

또한, 민간업체로부터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음압병동에서 사용하는 멸균 소독살균기를 투표소별로 지원받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투표소에 대한 사전방역은 불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소 방문을 망설이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표소 내 감염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론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투표소 환경을 조성했다"며 "안심하고 투표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